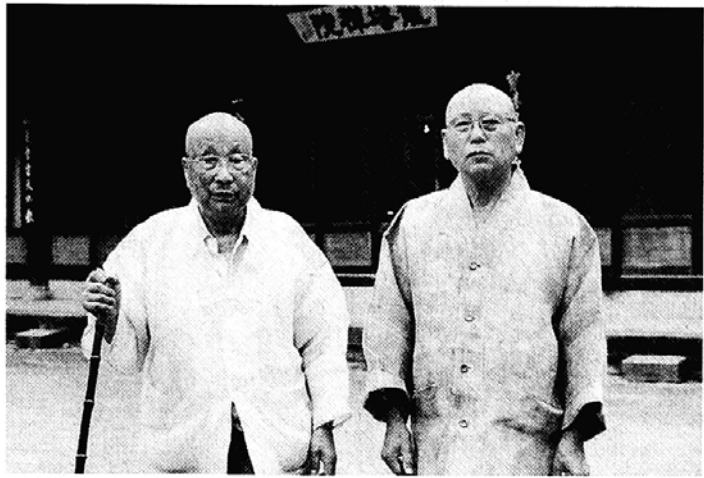


크스님 수행한담

어둠에 물들지 말자



↓ 절친한 도반으로 용담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제 성호스님과 함께한 석경스님 (사진 왼쪽).

습니다.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는것도 서로 기대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한테 기대려는 생각도 좋지 않은 발상입니다.

“여자는 수행해봤자 성불을 못한다더라”는 생각이나 “가정에서는 매일 참선하기가 힘들어서 안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에서 가정수련은 시작됩니다.

인도의 유마거나 중국의 방언거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설거사같은 분들은 가

예전에는 꿈도 못꾸던 일이지요.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불교서적들도 읽기 쉽게 번역되어 있고 사찰수련회도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결심만 굳건하다면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수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들면 월요일은 108참회수련을 하고 화요일은 독경과

지붕을 성글게 이어놓으면 비올때 빗물이 새듯 수행을 게을리하면 곧바로 뚫리고 맙니다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탁발하러 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명상수행을 했는데 마을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

니다. 하루는 그들중 한 수행자가 “내 혼자서 탁발을 해오면 나머지 도반들이 수행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것이다”고 생각하고는

도반들에게 “내가 대신 탁발을 해줄것인 즉 열심히 정진해서 도를 깨치거든 반드시 나를 제도해주시게”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에 내려갔던 이 수행자가 국왕의 행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화로운 마차랑 호위군사들, 가는곳마다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엎드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 수행자는 “이야! 임금 자리는 정말 대단하구나. 가만히 앉아서 도닥아 봤자 부처되기는 글렀고 임금이

룩된 생각에서 8만4천 번뇌가 비롯됩니다. 흔히들 귀신을 천도한다고 하지만 바른 마음, 바른 생각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제도하는 것이 진정한 천도라고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보고 들은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근본에서 멀어진 것이 많아 늘 바른생각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

롭거나 게을러지고 배가 부르면 음식이 생기기 쉬우니 수행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난 10여년간 <능엄경>과 <묘법연화경>을 우리 말로 쉽게 풀어쓰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한문본을 보자니 어렵고 더해서 여러 번 읽기가 불편해 번역하기로 결심했지요.

흔히 알음알이를 일컫는다고 해서 경학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곧 법신불인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경학은 큰 농사를 짓기위한 밑천을 장만하는것이라 할만합니다. 기왕의 토대가 있으면 참선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스님들께서 경전을 불태워버리라고 한 것은 경전의 글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요, 알음알이를 세워 머리로 수행하지 말라는 뜻이지 경전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입적하시기 전에 ‘자기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아 험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回頭一覽 還鄉路(회두일망 환향로) 順是安否 逆是眞(순시안포 역시진) 南北東西 滄海上(남북동서 창해상) 行船只在 把稍人(행선지재 파소인) 고개를 돌려 고향을 바라보니 곧바로 가는 것은 망령되고 거슬러 가는 것이 올바른다. 넓은 바다위 배의 항방은 키를 잡은 사람에게 달렸도다

자기자신의 본성자리를 찾아가는길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 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속에 파묻혀 흐르는대로 살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참구하면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길을 가는 주인공은 바로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홍희표

<목원대 교수·시인>

나와 여동생은 연년생이다. 젊은 어머니는 두 젓먹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항상 허덕이셨다. 그때부터 나는 어머니 젓가슴보다는 할머니 품속에 있을 때가 많았다.

나의 허기진 배가래는 젓이 부족해 늘 정겨웠다. 그러나 젓먹이 손주들이듯 모두 챙겨주셨다. 고향 뒷산 같은 할머니 등에 업혀 있으면 먼저 눈길로 들어오는 것이 커다란 할머니 귀. 그 귀는 함부로 접근 못할 품위와 북성스러움을 지니고 있었다. 훗날 나는 할머니의 커다란 귀가 꼭 대웅전의 부처님 귀같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그런 유년기의 투정에서 벗어나 날 무렵 할머니의 큰 나들이가 시작되었다. 할머니의 큰 나들이는 절에 다

바쳤다. 육상선수에서 시스기 선수로 바뀌어 불교종립학교인 보문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교장선생님은 용봉 이재복 대법사였다. 용봉선생은 일찍이 갑사에서 출가해 해화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서경주 조지훈 시인과 함께 시를 쓴 유망한 시인. 열렬한 후원 아래 나는 저명한 학생문사로서 전국고교 문예백일장을 휩쓸게 되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다. 불교의 자비정신을 씨줄로 민족의 자존심을 날줄로 민족사학의 이름을 골게 세운 나의 모교. 그중에서도 국문과는 우리나라 문학봉네를 즐기치게 선도해

왔다. 벌써 문학동네에 나온 지 여든 30여년. 지금와서 되돌아보면 항상 내 주

유년기 할머니와 절나들이 '불법인연' 고정관념 버리고 '나' 방생하는 삶 서원

니시는 것. 특히 부처님오신 날이면 며칠 전부터 묵언정진 하시며 행동거지를 정갈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멋도 모르고 할머니 손에 끌려 종종 절에 갔다. 할머니는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시며 '관세음보살'을 읊으셨다.



위에 우람한 정자 느티나무 같은 선생 선배 시승(詩僧)들이 알게 모르게 나의 시스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버림받은 노릇을 해 준것이 커다란 행운이었다.

아, 그래서 할머니의 귀는 부처님 귀야! 나는 그때 깨달았다. 할머니의 도타우신 음덕으로 우리 집안은 내리물림으로 어머니, 나의 아내까지 지극정성으로 절에 다니며 불자로서 자처하고 있다. 그 불교와의 인연, 내 마음의 처마끝 풍경소리의 첫모습이다.

1980년 고향에 정착하면서 계몽산 심우정사를 집필실처럼 즐겨 찾았다. 시를 애기고 좋아하는 선승 목초스님이 주석하시고 있기 때문이었다. 훗날 밑에서, 꼭차 속에서 나의 '이 뉘꼬' 같은 시스기에 매달리기도 했다. 그 목초스님도 지금 내결에 없다.

나는 초등학교 때 육상선수생활을 했다. 그러나 전국대회에서는 입상하지도 못해 최초의 좌절을 겪었다. 그 마음의 생체기로 활발한 성격이 구겨져 내성적으로 변해버렸다. 그 때 유일한 즐거움은 사춘누나가 선물로 준 만해스님의 <님의 침묵>이었다. 황홀했다. 깊은 형이상학적 불교시를 단지 떠나간 님을 그리는 연애시로만 해석 하였던 것이다.

일체유심조의 불교적 마음과 윤회라는 불교적 진리 속에서도 아이 생사의 고통은 깊고 멀어라. 최근 송기원이 장편소설 <안으로의 여행>을 펴냈다. 진정한 '나'의 실체를 찾아 히말라야 산맥 언저리를 찾아가는 일종의 구도소설. '나'가 히말라야에 가서 얻은 인간에 대한 깨달음, 곧 내에 대한 개인이 방생정신으로 나타난다.

나는 알 수 없는 초월적 님의 매력에 빠져 유치찬란하게 <님의 침묵>을 모방한 연애시를 써서 사춘누나에게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를 방생하여, 만물의 정령들과 더불어 호흡하는 경지. 그것은 수행의 종착점이 아닐까. 나도 연민의 연꽃 위에 고요히 앉아 그 종착점으로 서서히 다가서고 싶다.

부처님한테 기대는 것 바른 믿음 아니죠 그릇된 생각에서 8만4천 번뇌 나와요

정을 가진채로 도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앞서나가는 한쪽이 다른쪽을 이끌어주면서 부부가 서로 경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굳이 독신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출가를 하게되면 수행할수 있는 분위기가 처음부터 갖추어져 있는데 반해 재가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정을 수행공간으로 꾸미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습니

다. 지붕을 성글게 이어 놓으면 비가 내릴 때 빗물이 새듯이 수행도 철저하지 않아 게으르게 되면 탐욕은 곧 이것을 훔고 맙니다.

요즘은 말법시대라 혼탁한 반면 참으로 공부하기가 편리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크스님들의 법문이 수시로 열릴뿐 아니라 불교교리강의도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경을 하며 수요일은 좌선을 하는 식입니다.

수행의 가장 기초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겉으로 아무리 훌륭한 법문을 해도 겹겹이 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들과 같은 말법시대에는 계율을 잘지키면 생활이 청정하고 밝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산란해져 폐해가 심해집니다.

오늘날 헤이해진 승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스님들마다 바르고 큰 원력을 세워야합니다. 개개인의 원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묘법연화경> 묘장엄왕 본사품 제27에 보면 한 생각, 한 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나옵니다. 먼 옛날 인도의 한 산속에 4명의 수행

한번 되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품었는데 그 원력의 간절함으로 인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탁발을 나간 수행자가 돌아오지 않자 도반들이 해안으로 관(觀)해보니 죽은후 왕가에서 몸을 받는 수행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친구를 제도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임금보고 누가 도를 탁으라고 권하겠는가?”

“우리도 각자 왕비와 자식으로 태어나 저 친구를 제도하기로 함세.”

이렇게 해서 4명의 수행자들은 모두 왕가에 환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부처님은 바른 생각, 바른 견해로써 생활해나가고 8경도에서 강조하셨습니

다. 바른 생각에서 바른 행동이 나오고 그

불교방송 서울 본사: FM 101.9MHz 부산지방국: FM 89.9MHz 대구지방국: FM 94.5MHz 광주지방국: FM 89.7MHz 청주지방국: FM 96.7MHz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주소 : 순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후원회 : (02)705-5560-1 방송참여 : (02)705-5555~8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FAX : (02)705-5229

Table with columns for station, frequency, and program details. Title: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